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니혼생명, 영업 전문가 육성 위한 ‘지역 종합직’ 제도 도입

□ 니혼(日本)생명은 생명보험 영업 전반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보험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근무지역을 제한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합직 제도를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.

- 니혼생명은 영업전략 수립, 법인 및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지원 등 생명보험 영업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할 ‘지역 종합직(일명 CS 종합직)’ 제도가 영업력 강화와 불완전 판매를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니혼생명의 지역 종합직 제도 요약

항 목	주요 내용
인 원	- 400명을 우선 선발하며 종합직 대우(대부분 여성)
활동 지역	- 관동지역(수도권)과 관서지역(2부 2현)으로 한정 - 근무지를 한정함에 따라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(Work & Life Balance: 가정과 직장사이의 조화)를 지원해 지역에 우수인력을 정착하고자 하는 취지
주요 업무	- 개인·법인을 위한 영업지도 및 교육, 회사가 추진하는 내점형 점포에서의 고객 서비스 제공, 방카슈랑스 현장에서 은행직원에게 대한 창구판매 영업 지원 등
채용 및 지원 프로세스	- 채용은 영업관련 부문에서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모집하고, 올해 중 대졸채용도 병행할 예정 - 대졸사원은 입사 후 2년간은 대기업이나 관공서에 근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영업을 전담시킬 계획 - 영업현장 실무를 체험하면서 금융상품이나 사회보장, 세무 등 폭넓은 금융지식이 있는 파이낸셜 플래너(FP) 자격 취득과 전문적인 영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 등을 회사 차원에서 집중 지원할 예정 - 3년차 부터는 개개인의 적성에 따라 영업업무를 부여하고 관리직 전환의 길도 열어줄 계획

자료 : 니혼생명 홈페이지.

- 저출산/고령화 등으로 보험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자신만의 영업 노하우 및 차별화가 보험사들의 핵심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, 니혼생명은 지역 종합직 제도의 도입으로 전문화된 인재를 육성하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주력할 계획임.
- 아울러 지금까지는 종합직의 대부분을 국내 영업현장에 배치했지만 지역 종합직 인력이 영업현장에 집중 배치되면서 그만큼의 여유 인력을 국제업무나 신규사업 등에 배정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유연한 인사정책이 가능하게 됨.

(니혼생명보험 홈페이지, Fuji Sankei Busines | 1/30)